

더불어민주당 대한민국 대선헌 제20대 대통령선거 선거대책위원회 김영희C센터  
담당 : 캠페인 그룹장 전인호 부단장 010-2045-9608

## “이재명을 싫어하는 분들께” 드리는 이재명 후보의 간절한 호소 - 김영희C센터 TV 광고 제1탄 “편지” 편 공개

- 대선 TV광고 역사상 처음 시도되는 문법 파괴
  - 이재명 후보에게 부정적 이미지를 갖는 중도성향 유권자들 대상으로 이재명 후보에 대한 새로운 해석 부각
  - 컨셉이 주는 파격만큼 더 큰 진폭의 울림을 가질 것으로 기대
- 2월 15일 20대 대통령선거가 개시되면서 TV 광고 대전이 본격적으로 시작됐다. 먼저 이재명 후보가 기선제압에 나섰다.
- 15일 오전 9시 30분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통령 후보 선거대책위원회 김영희C센터(홍보소통본부)는 당사 4층에서 설명회를 개최하고, TV 광고 제1탄 “편지” 편을 공개했다. 이날 공개된 광고는 올림픽 중계방송으로 앞당겨진 SBS 뉴스 직후인 18시 44분 송출될 예정이다.
- 이날 공개된 광고는 말 그대로 ‘역대급’ 이라는 평가다. “이재명을 싫어하는 분들께”로 시작하는 형식은 어느 역대 대선 TV 광고에서도 시도된 바 없다. 통상 선거 광고는 후보의 장점에 주목해왔다. 이번 광고는 잔잔한 BGM을 배경으로 한 중년 일반인의 내레이션을 통해 차분하지만 묵직하게 이재명 후보의 진심을 전한다. 이 후보의 흠은 사실은 약자를 위한 싸움에서 생긴 상처임을 담담하게 고백한다. 오해가 쉽게 풀리진 않겠지만, 현재 우리가 처한 위기를 과연 누가 더 잘 극복하고 해결할 수 있을 것인지 질문해 달라고 호소하고 있다.
- “이재명 후보에 대한 오해와 선입견을 어떻게 풀 것인가에 대한 고민이 깊었다.” 는 김영희 센터장은 “이재명 후보를 바라보는 국민의 마음과 시선에서 출발해 편지 형식으로 후보가 걸어온 삶과 진심을 전달하고자 했다.” 며 기획 의도를 밝혔다. 후보가 자신에

대한 부정적 인식을 겹쳐히 수용하고, 이를 성찰과 전환의 계기로 삼겠다는 의미다.

- 선거 광고의 문법을 깨는 형식에 유권자들 특히 아직도 관망 중인 중도층, 부동층이 어떻게 반응할지 결과가 주목된다. 이원일 총괄단장은 “컨셉이 주는 파격만큼 이재명 후보의 호소는 더 큰 진폭의 울림으로 더 널리 퍼질 것으로 기대한다.” 고 말했다.
- 김영희C센터는 이날 공개된 “편지” 편을 시작으로 순차적으로 후속편을 공개한다고 밝혔다. 광고편성 시간도 사전에 공개해 안내할 계획이다.
- 한편, “편지” 편을 포함해 향후 공개되는 TV 광고 등은 이재명TV 등 후보 및 민주당 SNS와 정치OTT 플랫폼 ‘재밍’ 을 통해서 다시 볼 수 있다. (끝)

첨부 : 이재명 후보 TV 광고 제1탄 “편지” 편 내레이션 및 이미지컷

이재명을 싫어하시는 분들께  
이재명은 말이 많아서  
공격적이라서  
어렵게 커서  
가족 문제가 복잡해서  
압니다  
죄송합니다  
하지만, 한 번 더 생각해주십시오  
누군가 말했습니다  
이재명은 흠이 많은 사람이 아니라  
상처가 많은 사람이라고  
그의 상처 대부분은  
약자 편에서 싸우느라 생긴 것이라고  
큰 미움이 있다 해도  
더 큰 질문을 해주십시오  
너무나 힘든 코로나 위기극복  
너무나 어려운 경제 위기해결  
누가 더 잘 해낼까  
유능한 경제대통령 기호 1번 이재명

